

‘모택동 사상’의 일면: ‘부르조아 권리 비판’을 중심으로

이동진*

목 차

- I. 서론
- II. ‘제1차 부르조아 권리 비판’의 배경
- III. 제1차 부르조아 권리 비판: 전면적 비판에서 부분적 비판으로
- IV. 제2차 부르조아 권리 비판과 반비판: 전면적 비판과 반비판
- V. 부르조아 권리 비판의 반비판에서 ‘진리 표준 논쟁’으로
- VI. 결론

한글초록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모택동 이 추진한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조아 권리 비판과 반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택동은 ‘경제적 평등’을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불평등(또는 ‘상대적 평등’)을 낳는 부르조아 권리를 제한(또는 철폐)하려고 했다. 부르조아 권리 비판은 대약진운동 시기와 문화혁명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였다. 논쟁은 ‘부르조아 권리 제한(또는 철폐)’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제1차 비판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에서는 부분적으로 주장되었지만, 제2차 비판은 전면적으로 주장되었다가 다시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부르조아 권리 제한(또는 철폐)’을 주창한 쪽은 모택동과 장춘교와 같은 이데올로그였고, 그것을 반대한 쪽은 실무자와 경제 이론가들이었다. 제2차 비판은 이후 권력 이동으로 인해서 반비판으로 귀결되었다. 곧 제2차 비판의 반비판으로 결국 부르조아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서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주제어

모택동 사상, 부르조아 권리, 부르조아 권리 제한, 부르조아 권리 비판과 반비판

I. 서론

모택동(毛澤東) 사상은 중국 헌법 서문과 중국공산당 ‘당 규약(黨章)’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지도사상으로 기입되어 있다. 모택동 사상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1945년의 중공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였다. 모택동 사상은 중국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그것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택동 사상을 ‘평등의 사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다시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문화적 평등’의 사상으로 보고, 우선 경제적 평등과 관련되는 부분을 ‘부르조아 권리 비판’을 사례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당시에 모택동 사상은 아직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신민주주의 혁명’과 조응하는 ‘신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만 제시되었을 뿐이었지만, 신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였

다. 1956년 9월에 중공 제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8대)가 개최될 당시에는 이미 ‘3개 개조(농업·수공업·자본주의 공산업의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어 있었다. 중공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스탈린의 이론을 학습하였지만, 그해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표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비판하는 비밀 보고를 하였다.

소련공산당의 스탈린 비판 이후 모택동은 스탈린과는 다른 자신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탐색하였다. 그것은 〈10대 관계를 논함〉에서 시작되어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대약진운동’, ‘인민공사운동’이라는 ‘삼면홍기(三面紅旗)’로 귀결되었다.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은 ‘대담하게 마음 먹고, 항상 높은 목표를 지향하며’, ‘많이, 빠르게, 좋게, 절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고, ‘많이’는 ‘인민공사’에서, ‘빨리’는 ‘대약진’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노선 투쟁이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빨리’를 둘러싸고, 다음으로는 ‘많이’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 양자는 사실 분리될 수 없다. 속도를 늦추면 범위가 좁혀진다.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운동’은 1959년부터 1961년까지의 3년 기간을 초래하였다. 1962년에 경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민공사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였다. 곧 ‘3自1包’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3자’는 ‘개인 텃밭(自留地)’, ‘농민(자유)시장’, ‘독립채산제(自負盈虧)’이고, ‘1포(청부제)’는 ‘가족농 청부제(包產到戶)’였다. 이에 조응하는 것이 또한 도시 국영기업에서의 ‘물질적 자극’이었다. 모택동이 보기에 이러한 ‘개인주의 풍조(單幹風)’은 소련의 ‘수정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 이에 모택동은 ‘물질적 자극’에 대해서 ‘정신적 자극’, ‘전문성(업무) 우선’에 대해 ‘정치성(사상) 우선’을 추진하는 ‘문화혁명’을 발동하고 ‘자본주의 추종자(走資派)’를 숙청하였다. 문화혁명 시기에 모택동은 다시 ‘무산계급독재하 계속혁명이론’을 제시하였다.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시기에 각각 ‘부르조아 권리 비판’이 발생하

였다. 비판자는 모택동이었지만 두 차례 모두 이데올로그인 장춘교(張春橋)가 앞장을 섰다. 장춘교는 1958년과 1975년에 각각 글을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 글은 모택동에 의해서 전국적인 토론에 부쳐졌고, 두 번째 글은 모택동의 ‘이론 문제에 관한 지시’를 학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제1차 비판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함께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었고, 제2차 비판은 모택동 사후 장춘교 등 4인방이 체포된 후, 다시 ‘범시파’와 ‘실사구시파’ 사이에 노선 투쟁이 전개되는 중에 실사구시파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었다. 부르조아 권리 비판이 모택동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부르조아 권리 비판의 반비판은 ‘등소평 이론’과 관련이 있었다.¹⁾ 이와 같이 ‘부르조아 권리 비판’은 모택동 사상 중에서 ‘경제적 평등’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 논쟁의 귀결이 ‘모택동 사상’에서 ‘등소평(鄧小平) 이론’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부르조아 권리 비판과 반비판’을 사례로 해서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 이론’의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1차 부르조아 권리 비판의 배경

부르조아 권리 비판이 벌어지기 전에 ‘맹목적 발전(冒進)’과 ‘맹목적 발전 반대(反冒進)’의 충돌이 있었다. 건국 초기에도 유사한 충돌이 있었다. 그것은 농업집단화의 속도를 둘러싸고 모택동과 유소기(劉少奇)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유소기는 1951년 2월 모택동이 말한 적이

1) 등소평 이론은 1997년에 개최된 제15대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서 ‘모택동 사상’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지도 사상으로 삽입되었으며, 이후 2002년에 개최된 제16대와 2012년에 개최된 제18대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서 ‘3개 대표 중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이 각각 지도 사상으로 삽입되었다.

있는 ‘3년 준비, 10년 건설’을 총계획이라고 하고, 4월 산서성위가 화북국(북방국 책임자는 薄一波)과 중앙에 보고한 〈노구(老區, 중공이 점령한 지역) 호조조(互助組)를 일보 제고하자〉는 보고에 대해서, 호조조와 집단농장은 다른 문제이며 호조조를 집단농장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했다. 모택동은 자본주의 국가가 공장수공업 단계에서 중기 동력 기계 없이 공장 분업에 의거해서 새로운 생산력 단계를 형성하였듯이, 중국의 합작사도 통일경영에 의거해서 새로운 생산력 단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고 했다(薄一波, 1993, 191; 朱育和·蔡樂蘇, 2000, 214-217).

유소기는 공업화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 집단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모택동은 소련 모형인 공업화, 기계화를 추진한 후에 집단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를 먼저 추진한 후에 공업화와 기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모택동은 1943년 11월에 〈조직하자〉는 제목으로 섬감녕변구 대생산운동의 경험을 총괄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바로 ‘조직’이 모택동이 생각하는 새로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9월에 제1차 전국호조합작 사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생산호조합작에 관한 결의(초안)〉를 기초하고, 토지개혁 후의 개인경영의 적극성뿐만 아니라 호조합작의 적극성을 강조하였다(朱育和·蔡樂蘇, 2000, 217-218).

모택동은 1952년 9월에 개최된 중앙서기처회의에서 사회주의 이행(過渡) 문제를 토론하면서 ‘돌변론’에 대해 ‘점진론’을 제시하였다. 모택동은 양자를 다리를 건너는 것과 배를 타는 것에 비유하였다. 모택동은 농업생산합작사를 농업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형식으로 보았다. 모택동은 주요 모순을 노동자계급과 민족자본가계급의 모순으로 보았으며, 1953년 6월에 이행기의 총노선을 “국가 공업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공업을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총노선은 점진적으로 생산관계를 개변하여 소유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생산력을 제고하고 국가 공업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54년 9월에 제정된 헌법에서 ‘이행기 총노선’을 기재하였다(朱育和·蔡樂蘇, 2000, 225-229).

모택동은 중공 8대를 준비하는 중에 “중심사상은 우경사상을 반대하고,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를 앞당겨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55년 10월에 개최된 중공 7기 6중전회에서는 <농업 합작화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모택동은 농업생산합작사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농업생산합작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편집하게 하고, 1956년 1월에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 고조』를 출판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합작화운동의 백과전서였다. 모택동은 1955년 12월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앞당겨 완성한다”는 지시를 발하였다. 모택동은 1956년 1월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 발전을 장기 목표를 삼아, <농업 17조>의 기초 위에서 <1956년에서 1967년까지의 전국 농업발전 강요(초안)>(농업 40조)를 작성하였다.

농업 40조의 높은 목표에 따라서 공업, 교통, 상업, 문교 부문도 원래의 계획 지표에서 더 높여야 했는데, 주은래(周恩來)와 진운(陳雲, 중공중앙부주석)이 담당하는 국무원 경제부문에서는 1956년의 국가 경제계획 중에 자원, 특히 철강이 부족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주은래는 일찍이 1953년부터 수차례 “보수사상을 반대해야 하지만, 또한 급조 정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1956년 2월 주은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956년 국민경제계획(초안)>을 토론하면서 공업부문과 관련 교통운수부문에서 강재를 각각 4퍼센트, 2.5퍼센트 절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후에 ‘2월 促退회의’라고 불렸다(宋連生, 2002,

18).

모택동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서 〈10대 관계를 논함〉을 발표하여 사회주의 건설은 본국 국정에 근거하여 자기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면적으로 공업을 중시하고, 농업과 경공업을 경시하였다고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모형을 비판하였다. 곧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방법은 농민을 희생한 것이라고 하고, 투자 비율을 조정하여 농업과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956년 6월 유소기가 주지하는 중공중앙회의에서도 주은래는 재정지출을 계속 삭감하고 기본건설 투자를 압축하며 계획지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회의에서는 보수에 반대하고 모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월 20일에 중앙선전부가 기초한 『인민일보』가 〈보수주의에 반대하고 또한 급조 정서에 반대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하였다.²⁾ 주은래는 7월에 개최된 전국인대 1기 4차 회의에서 1957년의 국민경제계획의 주요 지표를 심의 통과시켰으며, 9월에 개최된 중공 8대에 〈제2차 5개년계획(1958-1962년) 건의 보고〉를 제출하였다.

중공 8대는 등소평이 책임자로 기초한 〈당 규약〉에서 중공의 지도 사상으로 ‘모택동 사상’을 삭제하고, 유소기가 정치보고,³⁾ 등소평이 조직보고를 하였으며, 폐회식에서 〈정치보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에서는 중요한 모순을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와 낙후한 생산력간의 모순’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는 당연히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고, 사회주의

2) 이 글은 모택동의 심사검열을 거쳤는데 모택동은 ‘보지 않았다’라고 결재하였다. 1958년 1월에 개최된 남녕회의에서 모택동은 “이 사설(社論)을 나는 ‘보지 않았다’고 결재하였다. 나를 욕하는 것을 왜 봐야 하는가”라고 했다. 宋連生, 『總路線・大躍進・人民公社化運動始末』, (云南人民出版社, 2002).

3) 7대에서는 모택동이 정치보고 〈연합정부를 논함〉을 발표하였다.

제도에서도 여전히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자본주의길과 사회주의 길 사이의 모순이 주요한 모순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경제 건설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급투쟁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주은래는 11월에 개최된 8기 2중전회에서 〈1957년 국민경제계획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 “중점을 보증하고, 적당 퇴각하거나 적당히 수축한다는 방침을 제출하였다. 모택동은 불만스러웠지만 비판을 하지 않고, “중점을 보증하고 적당히 수축한다”는 방침에 동의하였다. 8기 2중전회가 개최될 당시는 폴란드와 헝가리 사건이 발생해서, 대부분의 주의력이 국제 문제로 전이되었다. 모택동은 1957년 예산과 계획지표를 압축하는 데 대해서 마지못해 동의하였다(朱育和·蔡樂蘇, 2000, 233-241).

1957년 말에 ‘1차 5개년계획’의 경제지표가 초과 완성된 것은 반모진 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었지만, 모택동은 1957년 4월에 〈정풍운동에 관한 지시〉로 촉발된 정풍운동에 호응해서 당내외의 민주파가 비판을 쏟아내자 민주파를 중국의 너지(1956년 10월에 헝가리에서 개혁을 지지하는 민중 시위로 정권을 잡았음), 곧 우파로 규정하고 정풍운동을 반우파투쟁으로 전환시켰다. 모택동은 우파의 언론 중에는 반모진 문제를 이용해서 공산당이 경제를 영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중시하여 모택동이 “반모진이 우파의 진공을 촉진했다”라고 하여 반모진을 우파와 연계시켰다.

주은래도 6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1기 4차회의에서 〈정부공작 보고〉를 하면서 “1956년의 건설은 (모진이 아니라) 약진의 발전을 하였다”라고 하였다.⁴⁾ 모택동은 “정풍을 이용하여 도리어 우경보

4) 주은래는 공작보고를 한 지 9일 후에 모택동에게 편지를 보내어 〈공작보고〉에서 자신이 최초로 반모진을 포기하였다고 했다.

수사상을 비판하고”, “정풍을 이용하여 사상을 통일한다”는 구상을 하였다. 모택동은 9월과 10월에 개최된 중공 8기 3중전회에서 반모진을 비판하였다. 모택동은 “작년 한 해에는 몇 개가 비판을 당하였는데 하나는 많이, 빠르게, 좋게, 절약해서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많아서 안되고 빨라서 안되고, 좋게 절약해서도 같이 비판당하였다. 좋게와 절약해서는 내가 보기에 어떤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많게와 빠르게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어떤 동지는 모진이라고 했다.”라고 지적하였다. 모택동은 또한 반모진이 농업발전강요 40조를 부정하였고, 촉진위원회를 부정하였다고 하고, 이것이 군중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고 적극성에 타격을 미쳐 건설, 특히 농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趙泉鈞, 1996, 52). 10월 19일에 인민일보가 〈혁명의 촉진자가 되자〉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모택동은 11월에 소련을 방문하였다가 흐루시초프가 그에게 “15년 후 소련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하자 “15년 후에 우리는 영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했다. 1957년 11월 13일 『인민일보』가 〈전인민을 발동하여 40조 강요를 토론하자〉는 제목의 사실을 발표하여 농업 생산의 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1956년은 정확한 약진이지 모진이 아니었다”라고 했다(朱育和·蔡樂蘇, 2000, 245).⁵⁾ 12월 12일에 『인민일보』가 〈많이, 빨리, 좋게, 절약하는 건설방침을 반드시 견지하자〉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전당 전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진을 비판한 것이었다(劉武生, 2004, 10).

모택동은 1958년 1월에 항주(화동지구 4성 1시 중공당위 서기 회의)와 남녕에서, 2월에 북경에서, 3월에 성도에서, 4월에 무창에서 각각

5) 1958년 5월 26일 『인민일보』 사론에서는 약진 구호를 발명한 사람에게 제1호 박사학위를 수여하자고 했다. 朱育和·蔡樂蘇 主編, 『毛澤東與20世紀中國』, (清華大學出版社, 2000), p.245.

개최한 일련의 회의에서 반모진을 우경보수라고 비판하였다. 1월 12일부터 개최된 남녕회의에서 모택동은 “반모진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이 명사는 정치문제이다. 이것은 정치에 속하지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민일보 사론인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또한 급조 정서를 반대하자〉를 비판하면서 이 사론이 자신이 쓴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 고조』 서언(序言)을 겨냥하여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1958년 3월에 성도에서 개최된 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서, 모택동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두 개의 방법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맑스주의의 모진이고 다른 하나는 비맑스주의의 반모진이라고 했다. 모택동은 “미신을 타파하고 사상을 해방하자”라고 하고 “적극성을 발휘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며, 많이, 빠르게, 좋게, 절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총노선을 제출하였다(劉武生, 2004, 10).

남녕회의에서 주은래, 진운, 유소기가 반성문(檢討書)을 발표하여 인민일보 사론에 책임을 졌고, 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진운, 이선념(李先念,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박일파(국가경제위원회 주임) 등이 반성문을 발표하고 반모진 중에 범한 착오의 책임을 졌다. 이선념과 박일파는 직전에 개최된 전국인대 1기 5차회의에서 각각 보고를 하였다. 성도회의에서는 다시 주은래와 유소기가 반성문을 발표했다. 8대 2차회의에서 다시 주은래, 진운, 박일파, 이선념이 반성문을 발표했다. 진운과 주은래가 반성문을 발표한 후 모택동이 “반모진이 해결되었다. 현재 중앙이 단결하였고, 전당이 단결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劉武生, 2004, 74-76, 93-95).⁶⁾ 유소기

6) 주은래가 반성문을 발표한 후에 모택동은 1957년에 주은래가 발표한 〈정부공작보고〉가 “무산계급 전사의 자태로 자산계급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긍정하였으며, 그 9일 후에 주은래는 모택동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반모진을 포기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劉武生.

가 발표한 〈공작 보고〉는 8대 결의를 수정하고 계급투쟁이 주요한 모순이라고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제시하였다. 모택동은 스탈린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 중 간부가 일체를 결정하고, 기술이 일체를 결정한다는 구호를 수차례 비판하고 우리의 경험은 군중운동, 정치 우선(卦帥)에 의존해야 한다고 했다(李銳, 1998, 101).

6월에 개최된 정치국상위확대회의에서 주은래가 제출한 국무원총리 사임 신청에 대해서 토의하여 부결시켰다. 회의 후에 중공중앙총서기인 등소평이 〈회의록(紀要)〉을 모택동에게 보내자 모택동은 바로 “양상곤에게 보내서 보관하게 하라”고 결재했다(宋連生, 2002, 101). 당시에 주은래를 교체할 수 있는 인물로는 상해시위서기인 가경시(柯慶施)가 있었다. 모택동은 남녕회의에서 가경시가 상해시 당대회에서 발표한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나아가자: 사회주의의 新上海를 더욱 빨리 건설하자〉는 보고를 칭찬하면서, “상해의 공업 생산액이 전국의 5분의 1이나 되고, 100만명의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또 부르조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자본주의가 먼저 상해에서 탄생하였으므로 역사가 오래되었고 계급투쟁이 가장 첨예한 데, 이러한 곳에서야 이러한 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이 북경에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지는 않다”라고 하였다.⁷⁾

“周恩來與冒進·反冒進”, 『縱橫』5, (2004). p.9.

7) 8대 2차회의 폐막 후에 개최된 8기 5중전회에서 임표(林彪)를 정치국상위,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가경시, 담진림(譚震林), 이정천(李井泉)을 정치국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당시에 팽덕회는 정치국위원이었으므로 임표가 팽덕회보다 상위자가 된 것인데, 이 때문에 팽덕회도 국방부장 사임을 신청하였다가 주은래와 마찬가지로 부결되었다. 국무원농업판공실 주임인 담진림도 당에서의 직위가 국무원 농업담당 부총리인 등자회(鄧子恢)보다 높았는데, 등자회는 농업합작화 이래 줄곧 우경으로 비쳤다. 이정천(사천성위 서기, 西北局 제1서기)은 가경시(華東局 제1서기)와 마찬가지로 대약진을 적극적

지금까지 1956년의 중공 8대에서의 방침이 1957년의 8기 3중전회와 1958년의 8대 2차회의에서 수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는 국외적으로는 소련공산당(이하 소공) 20대(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어지는 폴란드, 헝가리 사건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반우파투쟁이 있었다. 원래 소공 20대 이후에 중공도 ‘백가쟁명 백화제방’이라는 정풍운동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소공과 충돌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가, 헝가리 사건의 영향 등으로 반우파투쟁으로 전환되면서, 모택동이 반우파투쟁과 연계해서 반모진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8기 3중전회를 통해 8대 방침을 수정하였던 것이다. 모택동의 반모진 비판(반반모진)이 ‘부르조아 권리 비판’으로 이어졌다.

III. 제1차 부르조아 권리 비판: 전면적 비판에서 부분적 비판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개조로 사유제를 소멸한 다음 소련의 집단농장보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수준을 더욱 높이려고 했다. 그것이 집단 소유제에서 전인민소유제로 가는 이행으로서의 인민공사(人民公社)였다. 모택동은 1958년 4월 15일 〈홍기〉 제1기에 발표한 〈한 합작사를 소개한다〉는 글에서, “중국이라는 백지 위에 가장 새롭고 아름다운 문자를 쓰고, 가장 새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였다.⁸⁾ 모택동은 1958년 6월에 〈2년 후 영국을 추월하자〉는 보고를 결재(批語)하면서 공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주형 산업이 있

으로 지지하는 지방 영도인의 한 사람이었다(宋連生, 2002), p.100.

8) 4월 말 광둥에서 유소기와 인민공사 문제를 토론하면서 자신의 공산주의 미래상을 설명했다. 6월 14일에 유소기가 부녀연합회(婦聯)당조(黨組)와 담화를 하면서 모택동이 두 번이나 가정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李銳, 『反左文選』, (中央編譯出版社, 1998), p.100.

어야 하는데 강철을 중심으로 삼는다(‘以鋼爲綱’)는 공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홍기』 제4기(1958년 7월 16일 발행)에 진백달이 발표한 〈모택동 동지의 기치 하에서〉라는 글에서는 “우리의 방향은 점차 질서 있게 공·농·상·학·병(민병 곧 전민무장)을 하나의 대공사를 이루게 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기본단위를 구성한다”라고 설명했다(朱育和·蔡樂蘇, 2000, 246).⁹⁾ 1958년 8월 초에 모택동이 하북현 서수현 인민공사와 하남성 신향현 칠리영(七里營)의 인민공사를 시찰한 후에 인민공사의 특징을 “노동자·농민·상인기업가·학생·병사(민병)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큰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이다(一大二公)”라고 요약했다. 인민공사는 행정조직과 경제조직을 합친 것이었다(‘政社合一’). 스탈린이 사회주의에서도 집단과 전인민의 두 종류의 소유제가 존재하므로 아직 상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뒤집어 인민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상품과 화폐의 취소를 시도하였다(林蘊暉, 2000, 51). 모택동은 생산관계가 선진적일수록 생산력이 증대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인민공사화운동이 대약진운동과 결합되어 추진되었다. 모택동은 8월 17일에서 30일까지 북대하에서 개최한 정치국확대회의(중앙공작회의) 기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민주혁명시기에 22년간 군사공산주의의 생활을 지냈다. 배급제를 하였다. 우리는 이것에 의지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장개석을 패배시켰다. 그러나 도시에 온 후 우리는 부르조아적 권리 관점

9) 선전부장인 육정일이 모택동이 유소기에게 설명한 인민공사의 구체적인 구상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 중 많은 공산주의의 공사는 자기의 농업, 공업, 대학, 중학, 소학, 병원, 과학연구기관, 상점, 서비스업종, 교통사업, 타아소, 공공식당, 클럽,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등을 가지고, 약간 농촌이 도시를 둘러싸고, 더욱 큰 공산주의 공사로 된다”고 했다(李銳, 1998), p.101.

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고 임금제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등급에 따라 임금을 주고 옷을 3색으로 나누고 식사를 5등으로 나누고, 의자도 등급이 있고 사무책상도 등급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군중과 탈리하였다. (...) 도시에 온 후 임금제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결점은 그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것이다. 나는 배급제를 실행하는 것이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창조와 발명이 적을 것이라고 적극성이 낮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과거 22년간 배급제를 실행하고 모두가 공산주의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나태한 자를 몇 명 보지 못했다. 등급제도는 정신노동자가 임금이 많고 육체노동자가 임금이 적다. 이것은 부르조아적 권리이다.”

모택동은 인민공사가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배급제를 실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택동이 이야기하는 ‘임금제’와 ‘배급제’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1953년 국영기업에 소련식의 임금제가 도입되었고 1956년에는 간부에게도 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국가기관행정인원은 29급까지의 급별이 규정되었다. 14급 이상은 고급간부이고 15-17급은 중급간부이다. 이 직무 계열 중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담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정의 급별에 달하기만 하면 상응하는 정치, 경제 대우를 향수할 수 있었다(朱光磊, 1997, 228). 기술인원이나 사업단위 인원도 행정 급별에 납입되었다.¹⁰⁾ 1956년 7월에는 〈임금개혁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여 국영기업에서 노동자는 8급 임금제를 실시하고, ‘장려금’, ‘개수(計件) 임금제’ 등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¹¹⁾

모택동은 전쟁 시기에 실시하였던 ‘배급제’가 ‘임금제’로 되면서 경

10) 가령 대학교육인원은 6급에서 18급까지 있었다. 이 임금 제도의 틀은 1985년까지 유지 되었다.

11) 능력급(計件 임금제)은 시간급(計時 임금제)와 대립된다.

제적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임금제는 주로 도시에서 간부와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모택동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련에서도 실시하였던 ‘물질적 자극’ 정책을 ‘정치 우선’이 아니라 ‘이윤 우선’이라고 비판하고, 간부와 노동자 간에 나타나는 임금에서의 차등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의 차등, 곧 신분적 차등을 경계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관료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북대하 회의에서는 〈인민공사 건립에 관한 결의〉를 발표하고 인민공사를 사회주의 성질의 집단소유제이며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실행한다고 하였다. 인민공사는 빠르게 공산주의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朱育和·蔡樂蘇, 2000, 246).

가경시로부터 북대하 회의에서 모택동이 배급제를 찬성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가경시의 정치비서(상해시위정책조사연구실주임) 장춘교가 9월 15일에 〈부르조아적 권리 사상을 깨부수자〉는 글을 상해시위 선전부의 기관지인 『해방(解放)』 제671호에 실었다¹²⁾4) 장춘교는 1928년 11월에 당시 邊界(호남성과 강서성 경계지역)특위서기였던 모택동이 중공중앙에 보고한 〈井崗山の 투쟁〉에서 “홍군에서 고용제를 폐지한 것은 사병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인민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홍군은 어떤 정규의 급여제가 없고 다만 식량, 식용유, 식염, 땀감, 야채와 소수의 일용비를 지급할 뿐이다. (...) 군장으로부터 취사병에 이르기까지 식량 이외는 모두 5푼하는 반찬을 먹는다. 일용전을 발급해도 2각이면 일률로 2각을 발급하고 4각이면 일률로 4각을 준다.¹³⁾ 이 때문에

12) 1958년 6월 1일 중공중앙 이론간행물로 『홍기(紅旗)』(반월간)가 창간되자 가경시가 상해에서 7월 1일 『해방』(반월간)을 창간하였다.

13) 『毛澤東選集』, 第一卷, (人民出版社, 1991), pp. 63-65. 앞 문장은 다음과 같다. “홍군 사병의 대부분은 고용 군대에서 왔지만, 홍군에 오자 그 성질이 변하게 되었다.” 모택동선집 제1권에서 제4권까지는 1950년대 초와 1960년

사병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 새로 온 포로병은 국민당 군대와 우리의 군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홍군의 물질 생활이 국민당군 보다 열악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해방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같은 병사가 적군에서는 용감하지 않았지만 지금 홍군에서는 용감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향이다”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西村幸次郎, 1977, 247-249).

“주지하는 대로 인민군대 내부의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공산주의적 상호관계는 혁명근거지 내부의 상호관계의 모범으로 되었다. 군민관계에서, 정민관계에서, 군정관계에서 간부 상호관계에서 상하좌우의 상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지적인 평등관계를 준수하였다. 사람들은 손에 권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벼슬아치의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위풍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에 봉사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설득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상호관계를 처리하였다. 외부에서 온 사람은 이 해방된 토지에 들어오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혁명근거지 내부 전체에서는 내부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이 비교적 고되지만 ‘기꺼이 고통을 겪고 더욱이 모두가 같이 겪고’ 있고, 사람들은 공산주의적 성질의 배급제 생활을 하고 있고, 활동의 수요에 의해 생활 수준에 차별이 있지만 그것이 크지는 않았다. 동시에 정치를 중시하고 대중노선을 중시하고, 따라서 공·농·병·상·학은 일치단결하고 가족과 같이 친하고, 각고분투하고 영웅적으로 적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아직 해방전쟁시기의 대병단작전의 정경을 기억하고 있을까.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천, 수만의 민병이 대군을 따라서 남하하

대 초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제2판의 주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홍군 중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였는데 당시에는 필요하였지만, 후에는 등급에 따라 약간 구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다.

고 그들은 군대와 같이 군사공산주의적 생활을 하고 ‘벼슬이 올라가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심지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성과급제’를 실행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더욱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의 등에 양식을 지고 와서 혁명을 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3대 적(군벌, 일본 제국주의, 국민당 정부-저자)을 타도하고 전 중국을 해방시켰다.”

장춘교의 글은 중국의 혁명 전통으로서 홍군의 군사공산주의 생활과 배급제를 찬양한 것이다. 장춘교는 이러한 혁명 전통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곧 소련의 경험을 배우는 과정에서 소실된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국 해방이후 이 종류의 배급제를 특징으로 하는 군사공산주의 생활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배급제를 말하는 것은 오랜 혁명, 간고분투 등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다. 일부 혁명청년이 희망한 것이 또한 배급제였다. 자기도 고참 동지와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혁명을 하러 왔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원래 배급제 생활을 겪은 동지는 또한 어떤 임금제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종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생활제도를 기뻐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생활제도는 자산계급 권리사상의 공격을 받았다. 자산계급 권리사상의 핵심은 등급제도이다. 이러한 사상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배급제는 전혀 취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그것은 ‘농촌 방식’, ‘유격 습관’이라고 경멸하고 있다. (...) 당의 간부 중에는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가 적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중에서는 배급제의 결점을 논하는 논의가 점차 많게 되고, 임금제의 장점을 논하는 논의가 점차 우세를 점하였다. 나중에는 배급제는 나쁜 명칭의 하나로 되었다. 어떤 사람은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일을 하나 안 하나 2근반’이라고 하고 이것을 배급제 장부에 넣는다. 어떤 사람

은 공용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공사를 나누지 않는 배급제 방식’이라고 하고 또 배급제 장부에 넣는다. 공장과 광산, 상점이 경영이 좋지 않아서 돈을 배상하는 것도 ‘배급제 사상’이라고 하며 배급제 장부에 넣는다. 요컨대 공산주의적 배급제, 혁명의 승리를 보증한 배급제는 대죄를 짓고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으로 공격을 받았다.”

장춘교는 배급제와 임금제를 대비시키면서 상해의 노동자들은 배급제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배급제의 상황의 하에서 매우 많은 사람이 수십년의 무장 투쟁을 일으키고 설산을 넘고 초지를 갔다. 2만5천리의 장정은 누가 임금을 지불한 것인가.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임금에 의해 자극된 것인가. (...) 상해의 노동자들은 대변론(반우파투쟁)에서 이러한 이론과 방법이 지폐에 의하여 통솔하는 것(지폐제일)이지 정치에 의해 통솔하는 것(정치제일)이 아니라는 것을 침례하게 지적하였다.”

장춘교는 “배급제가 생산의 적극성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부르조아적 등급제도의 예와 법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적 평등관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맑스가 프랑스 내전에서의 파리 꼬문에 관하여 “꼬문의 의원을 시작으로 공무는 노동자와 동등의 임금으로 수행하여야 하게 되었다. 국가의 고관들의 기득권과 교제비는 고관들 자체와 함께 사라졌다”고 한 기술을 인용하였다.¹⁴⁾

14) 이러한 꼬문은 후에 문화대혁명 중에 상해노동자의 탈권투쟁(‘1월 혁명’)에서 나타났다. 상해 노동자의 탈권투쟁 배후에 장춘교가 있었고 새로 등장한 상해시꼬문(나중에 모택동에 의해서 혁명위원회로 개칭)의 주임이 장춘교

가경시가 장춘교의 글이 실린 『해방』을 모택동에게 보내 주어서 모택동이 장춘교의 글을 읽은 후에 『인민일보』에 전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인민일보 10월 11일자에 장춘교의 글이 다음과 같은 모택동의 ‘편집자 의견(編者按)’이 첨부되어 전재되었다. “이 글을 전재하여 동지들 토론에 부친다. 이 문제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글이 기본적으로 정확하지만 일부 편면성이 있다고, 곧 역사 과정에 대한 해석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선명하게 이 문제를 제출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모택동은 10월 19일에 진백달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장춘교와 함께 하남위성공사를 시찰하게 하였고, 15) 정주회의가 끝난 후에도 다시 진백달과 장춘교에게 산둥성 범현(範縣)을 시찰하게 했다(陳曉農, 2005, 164, 166).¹⁶⁾ 이제 장춘교는 당내 이론가로 알려져 있

었다.

- 15) 진백달은 시찰을 마치고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정주에 도착한 후에 모택동과 대화하는 중에 수평현(遂平縣)의 몇몇 회계가 ‘생산물 교환’을 하더라는 말을 하였다가 모택동이 ‘상품 교환’이 아니라 생산물 교환을 주장하는 것인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진백달은 계속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지방에 가서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가경시 등이 방문해서 안심하고 중앙에서 활동하라는 말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 정주회의에서 통과시킨 〈인민공사 약간 문제에 관한 결의(鄭州會議紀要)〉에서는 “인민공사의 생산 자료와 생산물은 점차 전인민소유의 성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곧 점차 생산 자료의 전인민성 부분을 증가시키고 생산물을 국가가 징발(調撥)하는 부분을 증가시키고, 국가 계획생산에 근거하고, 국가 계획징발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고, “점차 국가가 생산물을 징발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10년 내 공사의 순수입의 3분의 1은 개인에게, 3분의 1은 공사 축적에, 3분의 1은 국가 징발에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였다. 진백달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정주회의는 생산물에 대한 국가 징발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陳曉農, “陳伯達最後口述回憶”, 『星克爾出版(香港)有限公司』, (2005). pp. 163-164, 167-168.
- 16) 범현은 중앙선전부가 11월 4일에 편집 인쇄한 『선전교육동태(宣敎動態)』 제 134기에 게재된 〈산둥성 범현이 1960년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제출함〉이라

고 정치국후보위원이며 『홍기』 총편집자인 진백달과 같은 이론가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인민일보의 편집자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10월 18일부터 상해의 학술계와 북경의 정치법률(政法)학계 등이 2-3개월간 토론을 전개하였다. 토론 소식이 〈인민일보〉, 〈광명일보〉, 〈정법연구〉, 〈학술월간〉, 〈철학연구〉, 〈경제연구〉, 〈신건설〉 등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다(西村幸次郎, 1977, 173). 1958년 11월 〈학술월간〉 제12기에는 편집부가 쓴 상해시 사회과학연합회(社聯)이 개최한 6차례 부르조아권리문제 좌담을 종합한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는 장춘교의 글이 배급제의 성질 및 우월성, 물질적 원칙을 일면적 강조,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의 절대화 응고화에 대한 비판은 바르지만, 부르조아적 권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일소하는가, 부르조아 권리의 핵심이 등급제도인가, 해방 후에 부르조아 권리를 제도화, 계통화하고 더욱 발전시켰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견의 분기가 있었다고 했다. 장춘교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례로서는 1958년 11월 4일 상해법학회가 개최한 좌담회를 들 수 있다. 이 좌담회에서는 ‘부르조아 권리’와 ‘부르조아 권리의 잔여’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전자의 기초는 자본주의의 착취제도이고 후자의 기초는 사회주의 공유제라고 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은 사실상 경제적 불평등을 승인하지만 착취제도를 강화하지 않고 착취에 반대하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다. 그러나 부르조아적 권리의 잔여도 자본주의 성질이고 자본주의적 사유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¹⁷⁾

는 제목의 글이 모택동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이었다.

- 17) 부르조아적 권리의 잔여가 헌법에서는 부르조아적 권리의 잔여가 자본가와 개인 생산자의 재산소유권, 도시의 주택의 개인적 소유들에서, 법원 분야에서는 민사사건 처리에서 사유재산 관념의 확보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西村幸次郎 譯, “中國におけるブルジョアの權利論爭”, 『比較法學』, 12(1) (1977), p. 253.

반면에 같은 시기에 북경대학법학과 과학연구소조가 쓴 글에서는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인 상황에서의 부르조아 권리는 부르조아 권리의 잔여일 뿐이며 이는 사회주의 성질에 속하며, 부르조아 권리의 잔여가 주요하게는 ‘노동에 따른 분배’로 나타나며,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착취제도와는 대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도 부르조아 권리는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모두 가지는 바, 전자를 발휘하고 후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정적인 작용과 관련하여 ‘정치 우선’을 논급하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과정은 상당히 길고, 복잡하며, 그 과정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차별을 점차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부르조아 권리 사상을 철저히 일소함으로써 부르조아 권리 잔여를 소멸하는 정신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토론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이론상, 사상상 모두 극대의 혼란을 일으키고 노동에 따른 분배와 임금 활동에 대하여 한차례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李唯一, 1991, 48).”¹⁸⁾

배급제의 주장의 배경에는 인민공사화운동이 있었다. 인민공사에서는 밥을 먹고 돈을 배급제와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임금제가 서로 결합한 노동보수제도를 실행하였다. 농촌인민공사가 빠르게 도시로 확전을 하여 도시의 일부 기업도 인민공사로 고쳤다. 농촌의 분배제도도 빠르게 도시에 영향을 미쳐 많은 기업이 ‘반배급반임금제’ 혹은 부분임금부분배급제를 시행하였다. 동년 11월 노동부는 ‘신노동제도를 추진하는 사천 현장 경험회’에서 〈기업이 부분적으로 배급제를 실행하고 부분적으로 임금제를 실행하는데 관한 초보의견(초안)〉을

18) ‘제1차 부르조아 권리 비판’을 둘러싼 토론 상황에 대해서는 宮下忠雄(1976, pp. 45-53)을 참조하라. 참고문헌에 관련되는 목록이 있음.

토론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많은 지방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지만 반배급반임금제는 반년이 가지 않아서 요절하였다. 동년 12월 중공중앙의 〈인민공사 약간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는 “금후 일정 시기 내에 인민공사는 여전히 노동에 따른 분배 제도를 보류한다”고 하였다(李唯一, 1991, 49).

부르조아 권리를 둘러싼 논쟁 중에 모택동은 배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였다. 모택동은 11월 19일 정주회의에서 “부르조아 권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사회관계 방면에 속하는 것은 철저하게 폐지하고 임금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필요한 차별을 보류하고 많이 일하면 많이 버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고 하고, 11월 23일 무창에서 개최된 중앙공작회의 기간 중에는 “부르조아 권리 가운데서 폐지해야 하는 것은 폐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사용해야 한다. 일부 유용한 부분은 사회주의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용한 부르조아 권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부르조아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 그러나 부르조아 권리를 유용한 것과 무용한 것으로 구분하고 일부를 폐지하고 일부를 보호한다는 입장은 사회주의 발전의 객관적인 규율을 위배한 것이었다(石仲泉, 2000, 119).

모택동의 ‘배급제’와 인민공사는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모택동은 북대하 회의 기간에 “공상적 사회주의의 일부 이상은 우리가 실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모택동은 1958년 12월 〈인민공사 약간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토론하는 회의에서 〈후한서 장로전(後漢書 張魯傳)〉을 인쇄하여 전달하면서 오두미도 중의 무상 주택(義舍, 대로상의 공공숙소)을 설치하고, 무상 식사(義米肉)을 베풀었으며, 관리(長吏)를 두지 않고 모두 췌주(祭酒)를 두고, 췌주가 각각 무리(部衆)을 거느리고, 많으면 치두대췌주(治頭大祭酒)

로 한다(政社合一에 가깝고, 勞武結合이었다) 제도를 소개하였다(毛澤東, 1992, 629; 羅平漢, 2006, 253). 인민공사화운동은 전시공산주의에서의 군사체제와 유사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기능이 합일되어 있는 자급자족의 체계였다. 인민공사화는 Whyte(1989)의 용법에 따르면 ‘대규모 조직의 지배’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관료제화로 나아간 반면에 ‘법적합리적 지배’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관료제화는 퇴보한 것이었다. 이 시기 소련과는 반대로 중국은 기능으로서의 관료제화가 파괴되고 있었다.¹⁹⁾

IV. 제2차 부르조아 권리 비판과 반비판

모택동은 1958년 11월 제1차 정주회의 이후 8기 6중전회, 제2차 정주회의, 상해회의, 8기 7중전회를 거치면서 점차 좌경 착오를 고쳤다. 1959년 정주회의에서 배급제와 공공식당과 같은 평균주의(一平)와 생산대의 노력과 재물을 무상징발(二調)하는 ‘공산풍(共產風)’을 제지하였다.²⁰⁾ 원래의 ‘일대이공’은 생산대 소유제를 대대소유제로 이행하고, 다시 공사소유제로 이행하는 것이 농업이 사회주의 고급단계로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1959년에 개최한 제2차 정주회의에서는 “대대 혹은 생산대를 기본적인 생산과 분배 단위로 삼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많은 성에서 생산대의 규모가 수백호(이것은 1957년에 고급합작사가 200-300호였던 것과 비교된다)였다. 1960년말

19) 화이트는 전자를 내용과 구조로서의 관료제화, 후자를 형식과 기능으로서의 관료제화라고 하였다. 이 유형화를 따르면 구조로서의 관료제화는 약하고 기능으로서의 관료제화가 강한 유형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이고, 구조로서의 관료제화와 기능으로서의 관료제화가 모두 약한 유형은 전통 시기의 중국이 해당 될 것이다.

20) 모택동은 1960년 11월에 〈영원히 일평이조를 허가하지 않는다〉를 결재했다.

에 개최된 중앙공작회의에서 모택동은 〈10년 총결〉을 발표하였다.²¹⁾ 1961년 1월에 개최된 8기 9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 공고, 충실, 제고”의 방침을 채택하였다. 모택동은 두 회의와 1961년 3월에 개최된 광주 회의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조사연구를 강조하였다(朱育和·蔡樂蘇, 2000, 247-249). 1961년 3월 광주 회의에서 〈인민공사 60조〉를 제정하여 생산대를 기본 회계단위로 하고, 생산대를 30-40호로 나누었다. 이것은 실제로는 생산대가 고급합작사에서 초급합작사로 후퇴한 것이었다(薛暮橋, 1995, 333, 398).

1962년 1월에 개최된 중앙확대공작회의(통칭 7천인대회)에서 유소기는 농민의 말을 빌리면 (대기근의 원인은) 3할은 천재이고 7할은 인재라고 했다. 그리고 삼면홍기는 기본 방향과 주요 원칙이 정확하므로 취소할 수 없고 계속 견지해야 하고, 삼면홍기를 위해 분투해야 하지만, 어떤 문제는 현재 분명하게 볼 수 없고, 5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경험을 총결하여 그 때 더욱 잘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林蘊暉, 2000, 152-153). 7천인회의에서 모택동은 자신이 1961년 6월에 개최된 중앙공작회의에서 자신의 결점과 착오를 말하였고 그것을 각 성 각 지방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되지 못한 것을 알았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착오를 숨겨도 되거나 숨겨야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숨길 수 없다고 했다(朱育和·蔡樂蘇, 2000, 249).²²⁾

이 시기에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958년 7월에 흐루

21) 모택동은 1956년 주은래의 제2차 5개년 계획이 강철과 같은 대부분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趙泉鈞, “兩種社會主義建設方針之爭: 反冒進與反反冒進: 周恩來對八大正確路線的一個介貢獻”,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9(4), 1996, p.53.

22) 모택동이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고 전달하라고 한 것은 “반우파투쟁을 군중으로 확대해서는 안되고, 잘못 비판한 간부와 당원에 대해서는 재심사(甄別平反)을 해야 하며, 간부를 다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초프가 중국을 방문하였다가 중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1959년 6월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1957년 10월에 체결한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을 취소하였고, 중국과 인도의 변경 충돌에 대해 인도의 편에서는 중립을 성명하였다. 소련은 또한 미국과의 회담을 전후하여 중국의 내정정책을 공격하였다. 모택동은 1959년말부터 1960년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이론 문제를 연구하면서, 소련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사회주의 부분)를 비판하였다. 그는 물질 자극을 반대하고 정신의 작용과 사상정치 활동을 강조하였다. 모택동은 전쟁 시기의 경험으로 사회주의 건설 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1960년 4월에 『홍기』가 수정주의를 반대(反修)하는 글인 <레닌주의 만세>를 발표하였다.²³⁾

7천인대회에서 모택동은 소련의 당과 국가의 영도가 현재 수정주의자에게 찬탈되었다고 하고, 우리는 응당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며, 거기에서 교훈을 흡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모택동은 소련수정주의 반대로부터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중국에서 ‘수정주의 방지’의 문제를 제출하였다(朱育和·蔡樂蘇, 2000, 253). 모택동은 7천인대회 후에 경제곤란을 과장하는 풍조(黑暗風), 가정청부제(包產到戶)와 같은 사회주의 집단경제로부터 후퇴하는 풍조(單干風), 삼면홍기에 반대하는 우경기회주의분자를 재심사하거나 복권하는 풍조(翻案風)을 비판하였다. 유소기, 진운, 등소평, 등자회가 모두 가정청부제가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발휘시키는 데 유리할뿐더러 집단 경제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생산책임제의 형식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모택동이 보기에 가정청부제는 인민공사를 동요시킬 뿐만 아니라 원래의 집단농장식의 농업생산합작사를 동요시키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비서 전가영

23) 朱育和, 蔡樂蘇(2000), pp. 252-253.

이 그에게 가정청부제의 주장을 보고(回報)하자 “너의 주장은 집단경제 위주인가, 개인경제 위주인가?”라고 반문하였다. 모택동은 ‘개인경영(單干)’을 주장하는 것은 흐루시초프보다도 더 못한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부르조아 독재인가, 싼피부르조아 독재인가라고 반문했다(林蘊暉, 2000, 153-154). 모택동은 1962년에 개최된 8기 10중전회에서 수정주의 방어(防修)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계급투쟁을 잊지 마라”고 하였다. 모택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조정정책의 기초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프롤레타리아의 권리이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원칙은 신성불가침의 철칙이라는 주장도 발표될 수 있었다(劉慶堂·張玉璞, 1963; 宮下忠雄, 1976, 51).

모택동은 1963년 10월에 〈목전 농촌 사업 중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초안)〉(前 10條)을 제정하고 ‘사회주의교육운동’을 추진하였다. 사회주의교육운동은 사실상 유소기를 겨냥한 것으로서, 다시 문화혁명으로 이어졌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발동하면서 다시 공산주의 미래상을 강조하였다. 곧 1966년 5월 7일(5·16통지를 발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인민해방군총후근부가 농부업 생산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임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군대는 하나의 대학교가 되어야, 정치, 군사 문화를 배우고, 농부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고, 중소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약간 산품을 생산하고, 국가와 등가교환하는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군중 활동에 종사하고 수시로 부르조아를 비판하는 문화혁명 투쟁에 참가할 수 있다. 노동자도 노동을 위주로 해서 (중략) 조건이 되는 지방은 농부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고, (중략) 농민도 농업을 위주로 해서, (중략) 조건이 되면 집단이 소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부르조아를 비판하고 (중략), 학생도 (중

략) 상업 서비스업종, 당정기관공작인원도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는 대약진 운동 시기의 인민공사에 대한 기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다른 것은 부르조아 비판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추가한 것이었다. 위 기술에서 나타나는 이상사회는 분업(분업은 차별을 낳는다)이 소멸한 것으로서 마르크스는 생산력이 높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산주의사회로 보았다. 그러나 모택동이 실제로 추진한 인민공사는 자연경제의 소생산자 사회에 지나지 않았다.

모택동은 다시 부르조아 권리를 비판하는 문제를 제출했다. 1969년 4월 13일 제9대 개회 기간에 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아직 공장을 보면 소유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형식상만 해결된 것이다. 형식으로는 좌이지만 실은 우이다. 권은 실제로는 부르조아의 손에 있다. 당연히 공산당이 있지만 주자파(走資派)가 물질적 자극을 실시하고 이윤 우선을 실시하고 장려금 우선을 실시하고, ‘관리하고(管), 잡고(卡), 체포하고(拘), 벌을 준다(罰).’ 관리는 노동자계급을 관리하는 것이다.” 4월 28일 9기 1중전회에서 모택동은 다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공장에서 영도권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의 손에, 공장 대중의 손에, 있지 않다. 공장을 영도하는 당위서기, 부서기는 물질적 자극, 이윤 우선, 장려금 등 수정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경제 기초에서 상부 구조까지 자본주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石仲泉, 2000, 119-120).”

1972년 ‘임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노간부가 등용되게 되었고 이후 노간부가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4인방이 이데올로기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5년 1월에 등소평이 국무원 제1부총리로서 주은래를

대신해서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국무원부총리인 장춘교는 〈맑스·엥겔스·레닌이 논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편찬(編選)을 조직하는 등 사상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에서 모택동의 〈이론문제에 관한 지시〉 문건이 2월말에 신화사에 의해 전국에 전달(轉發)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시 부르조아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요문원(姚文元)이 〈홍기〉 제3기(3월 1일)에 〈임표반당집단의 사회기초에 관하여〉를, 이어서 장춘교가 〈홍기〉 제4기(4월 1일)에 〈자산계급에 대한 전면 독재를 논함〉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두 글은 모두 전국 각 신문에 전재되었고, 중앙인민라디오 방송국이 전문(全文)을 방송하고, 상해인민 출판사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두 문건은 정치학습의 필독 문건이 되었다. 전국적인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²⁴⁾ 요문원은 위 글에서 임표반당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계급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르조아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르조아 사상 부식과 부르조아 권리 존재에서 나타나는 신부르조아를 지적하고, 이들은 일반적으로는 모두 양면파(兩面派)와 벼락부자(爆發戶)의 정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춘교는 위 글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실행하는 것은 상품제도이고 8급 임금제 등과 같이 임금 제도도 불평등하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임표 부류가 정권을 잡으면 자본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 “위성이 하늘로 오르면, 홍기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고, 이러한 역사 경험은 우리가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되고, 강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결심을 하는 때 특별히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葉永烈,

24) 1975년 7월에 〈무산계급 독재를 공고하게 하는 근본 대법〉을, 10월에 〈마르크스주의 국가학설 강의(講話)〉를 각각 출간하였다.

1993b, 274-275). 이에 상해에서는 1973년 9월에 창간한 잡지인 『학습과 비판(學習與批判)』이 장춘교 사상을 선전하는 글을 실었다.²⁵⁾

모택동은 4월 23일에 요문원이 보낸 신화사의 〈프롤레타리아독재 이론 학습 보도 문제에 관한 결재요청(請示) 보고〉에 대해서 결재(批示)하면서 수정주의 반대는 경험주의 반대와 교조주의 반대를 모두 포함해야 하여, 요문원이 일면적으로 경험주의를 비판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5월 3일에 전달된 모택동의 ‘최고 지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단결과 분열, 광명정대와 음모계락을 대비시키고 전자를 하고 후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4인방’이 단결을 해치는 점을 지적하고, “내가 보기에는 경험주의를 비판하는 사람 자신이 경험주의이다”라고 지적하고, 강청을 경험주의라고 비판했다(葉永烈, 1993a, 298-299). 이것은 모택동이 구간부파와 4인방이 단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만 1975년 말에는 다시 등소평을 실각시키고 4인방을 지지하였다.

1976년 초에 4인방이 우경변안풍(右傾翻案風) 반격에 나서 다시 노간부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질책하였다.²⁶⁾ “아직도 부르조아 민주혁명 단계에서 정지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저축이 있고, 심지어 반대한다. (...) 부르조아 권리를 비판하는 데 반감을 가지고 있다.” 곧 4인방이 부르조아 권리에 대한 태도 문제를 민주파가 주자파로 전변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이룬다고 보고, 다시 한번 부르조아 권리를 비판하고 이를 문화혁명이 필요한 근거로 삼았다.²⁷⁾

25) 잡지 명칭은 『복단대학학보(復旦大學學報)』였지만 진정한 편집부는 상해시 위 집필조(寫作組) 내에 있었으며, 사실상 기관간행물이었다. 葉永烈, 『姚文元傳』, (時代文藝出版社, 1993a), pp. 275-276.

26) ‘우경변안풍’ 앞에는 ‘등소평 비판(批鄧)’이 붙었다.

27)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과 결합하여 ‘부르조아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 곧 장춘교를 배경으로 하는 ‘제2차 부르조아 권리 전면적인 비판’에 대해

1976년 주은래의 사망 이후에 등소평 등 노간부와 4인방간의 권력 투쟁 와중에서 이 두 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화국봉(華國鋒)이 총리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양파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었다. 4월 '천안문 사건'으로 등소평이 실각하였고, 그해에 모택동이 사망하였으며, 10월에는 4인방이 화국봉, 왕동홍, 셴겁영 등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1976년 12월 '제2차 농업에서 대채(大寨)배우기 전국 회의'에서 생산력 발전을 강조하고, 혁명은 곧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본 임무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1977년 초에 4인방의 부르조아 권리 제한에 대한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장춘교 등이 부르조아 권리 잔여가 아니라 부르조아 권리 자체가 존재하며, 부정적 작용을 강조하고, 정신적으로 경사하여 '오직 생산력론'이라고 비판하며, 부르조아 권리의 존재는 새로운 부르조아계급을 낳는 중요한 경제적 기초라고 한 것을 비판하였다. 장춘교의 글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경제기초가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고, 부르조아 권리가 소유제 방면에서 완전히 취소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상호 관계 방면에서 아직 엄중하고 존재하고, 분배 방면에서 아직 통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소유제는 그 형식만을 보아서 안되고 그 실제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 전인민소유제든 집단소유제든 지도권이라고 하는 문제 곧 사실상 어떤 계급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전인민소유제가 이미 당내의 부르조아소유제로 변하였다"고 하였

서는 宮下忠雄(1976, pp. 53-65)를 참조하라. 참고문헌에 관련되는 문헌 목록이 있음. 모택동의 〈정강산 투쟁〉이 다시 부르조아 권리 비판의 근거로 제시된 글도 있었다. 章文貢, "批判資產階級法權思想的强大武器-學習〈井岡山鬭爭〉", 『人民日報』, 1975.5.8.

다.²⁸⁾

장춘교가 부르조아 권리가 소유제 방면에서 완전히 취소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집단소유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홍기〉 1977년 제11기에서 발표한 글에서 경제이론가인 설모교(薛暮橋)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西村幸次郎, 1978, 123, 127-128).

“집단소유제는 단독 경영 소유제가 전인민적 소유제로 이행하는 경제 형태의 하나로서 일부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생산물을 점유한다. 국가는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에 대처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산 수단과 생산물을 무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집단소유제 경제가 국영 경제와 생산물을 교환하고 그들 상호간에 생산물을 교환할 때 상대방의 생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승인하는 기초 위에서 일반의 상품교환이 준수하는 등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집단 경제 단위가 각기 점유하는 생산 수단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동등하지 않고 각 지구의 자연 조건이 같지 않아서 각 집단 경제단위가 같은 양의 노동을 사용해도 생산물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국가는 각 집단 경제단위에 대하여 등가교환원칙을 실행하는 경우 제공하는 농산물이 많으면 이에 따라 공업품도 많다. 따라서 물질적 생산 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단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수입을 취득할 수 있다. 집단소유제 경제에서 국가는 ‘불평등한 급부 능력을 나면서부터의 특권으로서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불평등한 물질적 생산조건도 특권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집단 경제단위의 노동자 수입은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각 집단 경제단위가 점유하는 물질적 생산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각 집단 경제 단

28) 장춘교는 모택동의 다음의 말을 인용하여 ‘부르조아 권리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의의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 실행하는 것은 상품제도이고, 임금제도도 8급임금제 등 불평등하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을 뿐이다(葉永烈, 1993a 275).”

위는 또 생산 수단의 점유의 면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없고 국영 경제처럼 동일 노동에 동일임금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사유제의 흔적을 철저히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8억 인구 중 6억9천만명이 집단소유제 경제에서 생활하고 있다. 집단소유제 경제는 손익을 책임지고 일부 생산대는 국가계획에 기초하지 않고 가격이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자연발생적 경향이 나타난다. 사원(인민공사농민) 중 일부는 自留地와 가정부업을 생산 경영하여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등 소생산자의 고유한 특징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력 수준의 높지 않고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농민의 노동 보수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보다 낮다. 각 지구·생산대는 물질적 생산 조건의 상위 및 기타 원인에 의해 노동 보수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집체 소유제를 신속하게 전인민적 소유제로 이행할 수 없다. 우리는 공농업 발전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와 농민간·지구간·생산대간 차이를 서서히 축소하고 장래 전인민적 소유제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여야 한다.

설모교는 장춘교가 분배 방면에서 아직 통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주로 비판을 집중했다. 다음과 같은 논급이 그것이다. “수년 전에 토론에 의해 일부 저임금 직원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지도 간부가 인민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구하였지만 4인방은 물질적 자극, 복지주의, 부르조아 권리의 확대라고 하며 방해했다. 그들이 행한 행위는 부르조아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광범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노예소유자·봉건영주의 특권을 확대한 것이다(西村幸次郎, 1978, 128-129).”²⁹⁾

29) 설모교는 장춘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西村幸次郎, 1978, 114).
“장춘교 등의 주장은 ‘봉건적 사회주의’로서 ‘봉건적 권리로 부르조아 권리를

이러한 비판은 부르조아 권리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 소유제를 전인민 소유제로 이행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이행을 위해서는 생산력 발전이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78년 〈헌법〉에서 “농촌인민공사 경제는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소유제이고 생산대가 기본적 재산단위이다. 점차 생산대대를 기본적 재산단위로 하도록 이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부르조아 권리 논쟁에서 ‘진리표준논쟁’으로

부르조아 권리 논쟁은 결국 ‘진리표준논쟁’과 연결되어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차 3중전회에서 결속되었다. 이 논쟁의 귀결을 이끈 것은 등소평과 호요방이었다. 호요방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호요방은 1975년에 중앙독서반제471학원으로 등소평을 접견했다. 이 중앙독서반은 9대 이후 471까지 운영되었는데, 3기까지는 왕홍문(王洪文)이 주관하다가 4기는 등소평이 주관하였다. 제4기는 〈인민내부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와 〈고타강령비판〉 두 문건을 주로 학습하였다. 이 때 사회주의와 ‘노동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학습 기간에 요문원의 글이 발표되자마자 반(班) 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되었다. 호요방은 “〈고타강령 비판〉에서는 사회주의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문원의 글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는 구사회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는 모택동이 한 말이다)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

대체하려는 것’이고 ‘현대적 법가(法家)로서 ‘봉건적 전제주의의 법률 제도 및 법률 사상’에 다름 아니며 해방된 근로대중을 그들의 노예로 삼는 ‘봉건적 제왕의 사회주의’이다.”

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하였다(李振霞, 1998, 108-114).

1977년 초에 〈인민일보〉와 기타 신문과 간행물에서 요문원과 장춘교의 글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두 글을 4인방의 이론 관점과 정치 강령의 대표작이었다. 범시파(凡是派)가 주도하는 〈홍기〉 편집부는 요문원과 장춘교의 글을 비판하는 글의 편면성에 대해 비판하는가를 선전분야 책임자인 왕동흥(王東興)에게 결재요청을 하였다. 2월 7일 왕동흥이 결재하기를 “위 두 글은 중앙과 모택동이 본 것이다. 제목을 지적하면서 비판하지는 말고 글 속에 있는 착오 관점을 비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를 중앙 각 선전단위에 인쇄하며 보냈는데, 이는 실제로는 비판에 대해 압제를 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 활동은 실제 활동에서는 농총의 생산자료 소유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특히 농촌가정연산청부책임제, 농촌집시무역, 자류지, 이윤, 가치규율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였다(沈寶祥, 1997, 9-10, 13).

1977년 2월 7일에 〈인민일보〉, 〈해방군보〉, 〈홍기〉(‘兩報一刊’)의 社論으로 〈문건을 잘 공부해서 중심(綱)을 잡자〉는 글이 발표되었다. 이 글은 이전의 강생(康生) 비서로 현재 중앙판공청 이론학습조 조장이고 모택동저작편위원회판공실 제1부주임인 이흠(李鑫)이 기초한 것이었다. 위 글은 ‘2개의 무릇(凡是)’를 주장하였으며,³⁰⁾ 이는 곧 1997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중앙공작회의 전에 등소평이 복권을 하는 것을 저지한 것이었다. 위 중앙공작회의에서 진운(陳雲)과 왕진(王震)이 등소평 복권을 거론했지만 회보에는 실리지 못했다(沈寶祥, 1997, 330-331, 347).

30) ‘2개의 무릇’은 “무릇 모 주석이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 단호하게 지켜야 하며, 무릇 모 주석의 지시는 우리 모두 시종 어김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치영, “1978년 진리표준 토론과 그 정치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13(1) (2004), p.156.

경제이론계가 노동에 따른 분배 문제에 대해 토론을 전개하여 요 문원이 노동에 따른 분배가 부르조아를 낳는다는 오류를 비판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는 부르조아 권리가 아니라 사회주의 원칙의 하나이고 사회주의의 경제제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977년 4월에서 1978년 10월에 걸쳐 경제학계가 4차례 전국성의 노동에 따른 분배문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윽고 복권한 등소평이 1977년 7월 국무원정치연구실 여러 책임자와 경제학계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긍정하였다. 이렇게 정치연구실의 임간청(林澗靑), 풍난서(馮蘭瑞) 등이 기초하고 등소평의 심사·검열(審閱)을 거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사회주의 원칙 집행을 관철하자〉는 글이 완성되어 1978년 5월 5일자 〈인민일보〉에 ‘특약 평론원’의 문장으로 발표하였다(譚幼萍, 2000, 86). 이 전에도 신문과 잡지에서 이미 노동에 따른 분배 문제에 관한 글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개인 서명을 한 것이었던 데 반해서 이 글은 ‘특약 평론원’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전문이 2만자에 달하며 인민일보 제1판에 등재되었다. 그것의 명칭, 편폭, 규격이 모두 독자에게 내용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으며, 광범위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장춘교의 글과 마찬가지로 인민출판사가 바로 그달에 단행본을 출판했다.

이 글이 발표된 며칠 후인 5월 11일에 다시 〈광명일보〉에 또한 ‘특약평론원’ 명칭의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는 글이 발표되었다. 이 글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경제학에서 철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번의 특약평론원은 중앙당교의 〈이론동태(理論動態)〉 편집진이였다. 〈이론동태〉는 당시 중앙당교의 부교장이었던 호요방(胡耀邦)의 주도로 1977년 7월 15일에 창간된 내부간행물이였다(沈寶祥, 1997, 43).³¹⁾ 호요방은 이미 1977년 5월 당시 장려금을 지급해야하

는가, 장려금이 마르크스주의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이를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이 논쟁은 공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이론 문제였다(沈寶祥, 1997, 47). 이후 〈이론동태〉가 노동에 따른 문제에 대한 글을 실었다.³²⁾ 제671호에 실린 〈노동에 따른 문제는 반드시 부르조아를 낳는가 문제에 관한 탐토〉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는 공유제 기초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만일 노동에 따른 분배가 부르조아를 낳는다면 실제로는 사회주의 공유제가 부르조아를 낳은 경제기초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沈寶祥, 1997, 54-55).

이후에도 〈이론동태〉에는 경제학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들이 실렸다. 〈사회주의 기업이윤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제18기), 〈우리나라 사회주의 화폐에 관한 약간 문제〉, 〈가치규율을 이용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에 이바지하자〉, 〈사회주의 은행 이자가 착취인가〉, 〈4인방의 사회주의 상품생산을 훼손한 반동 오류를 논박한다〉(鄧力群), 〈4인방이 생산력이 역사 발전 중에 일으키는 긍정적인 작용에 대한 찬개를 폭로한다〉(제29기, 1977년 12월 5일), 〈농촌集市(集市) 무역이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인가〉(제36기, 1978년 1월 5일), 〈정당한 가정부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제55기, 1978년 4월 15일) 등과 같은 일련의 글에서는 반혁명 수정주의 노선으로 비판당한 물질적 자극, 이윤 우선 등 각개 주요 관점을 반영하였다. 마지막 두 편의 글이 인민일보에 전재되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沈寶祥, 1997, 55-56).

이미 1978년 3월에 진리 표준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3월 26일에

31) 국무원연구실도 1978년 7월에 내부간행물로〈조사와 연구〉를 간행했다. 국무원연구실은 1979년에 중공중앙판공청 조사연구실(調研室)과 합병하였다.

32) 제1기에〈계속혁명 문제의 탐토(探討)〉를 실었다.

인민일보 이론부의 장덕성(張德成)이 진리의 표준이 사회실천이라고 주장하는 〈표준은 다만 하나이다〉라는 글을 인민일보에 발표했다. 이때 독자 편지 가운데서는 진리의 표준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장도 있었다(沈寶祥, 1997, 21). 이에 호요방을 배후로 하는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글이 준비되었고, 5월 10일에 〈이론동태〉에 발표되었으며, 다음날 〈광명일보〉에 발표되고, 그 다음날에는 〈인민일보〉와 〈해방군보〉에 전재되었지만, 〈홍기〉에는 전재되지 못하였다. 5월 17일 선전공작 내부회의에서 〈홍기〉 총편집 웅복(熊復)이 5월 17일 〈광명일보〉에 ‘특약 평론원’의 명의로 발표된 두 글을 비판하였다(沈寶祥, 1997, 115). 이렇게 하여 범시파와 실사구시파간에 노선 투쟁이 ‘진리표준논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1978년 6월 20-21일에는 철학연구편집부가, 7월 17-24일에는 철학연구소와 철학연구편집부가, 경제연구소와 경제연구편집부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각각 개최되었다(沈寶祥, 1997, 164-165, 171). 전자에는 이데올로그인 부원장 등력군, 고문 주양 등이 발언 하였고, 후자에는 경제이론가인 손야방(孫治方) 등이 발언하였다. 1978년 7월에 인민일보 이론부가 개최한 ‘이론과 실천문제 토론회’의 예를 보면 여전히 일부 사람은 ‘노동에 따른 분배’가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을 모두 하며, 부정적 작용으로는 양극 분화와 부르조아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동에 따른 분배와 8급 임금제는 구 사회와 다르지 않다”고 한 모택동의 말을 인용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찬성하지 않았다(沈寶祥, 1997, 20). 이 논쟁은 결국 등소평이 제11기 3중전회 직전인 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행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를 실행하고,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연설로 정리되었고, 그 이후의 역사는 모택동사상이 아니라 등소평 이론에 의해서 씌어졌다.

VI. 결론

모택동 사상의 한 일면을 이루는 ‘부르조아 권리 제한’은 모택동이 마르크스의 저작인 〈고타 강령 비판〉에서 읽은 것이었다. 1875년에 마르크스는 독일사회민주당이 라팔레파와 합동하면서 ‘최고 강령’에서 후퇴하였는데, 이를 두고 부르조아 권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부르조아 권리는 다시 레닌이 1905년에 쓴 ‘국가와 혁명’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맑스와 레닌의 부르조아 권리 비판은 실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었다. 레닌은 전시공산주의 시기를 거쳐 신경제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그것이 1959년에 모택동이 읽은 구소련의 〈정치경제학교과서〉였다. 모택동은 이 교과서보다는 〈고타 강령 비판〉과 〈대동서〉, 심지어 〈후한서 장노전〉에 더 흥미를 느꼈다. 모택동이 다시 ‘부르조아 권리 비판’을 제시하였던 것은 문화혁명 기간에 다음과 같은 기념일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1967년 〈국가와 혁명〉이 발표된 지 60주년, 1970년은 레닌 탄생 100주년, 1971년은 파리코뮌이 설립된 지 100주년, 1975년은 〈고타 강령 비판〉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각각 되는 해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등소평이론을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헌법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헌법과는 달리 1982년 헌법은 “농촌인민공사 농업생산협작사, 기타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각종 형식의 협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 집단소유제 경제이다”라고 하여 다시 협작 경제가 부활하여 1954년의 헌법과 유사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가족청부경영제로 이행하였다. 이 과정은 가족농에서 농업생산협작사로, 다시 인민공사로 이행해 온 과정(토지개혁운동, 농업생산협작사운동, 인민공사

화운동)을 되돌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헌법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을 착취하지 않는 개인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하여,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허가하면서도 타인 노동력의 고용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1982년 헌법에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의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 개인 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 지원, 감독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직까지 타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 허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개인 경제는 가족 경영의 형태를 취하였고, 이를 ‘개인공상호’라고 불렀다.

1976년에 제정된 〈민법통칙〉에서는 민사주체로서 시민(자연인)에 개인공상호, 농촌청부경영호와 함께 지분을 가지는 공동소유 형태인 개인조합을 포함시키고, 또 다른 민사주체에 법인을 인정하고 기업법인에 연합경영을 포함시켰다. 1988년 헌법수정안은 “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존재와 발전을 허가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인도, 감독, 관리를 행한다”고 하였다. 사영경제는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적 경영을 말한다. 타인 노동력을 고용한다고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상해방’이 이루어졌다.³³⁾

1999년 헌법수정안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제로 하고, 다중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제로 하고, 다중 분배 방식이

33) 헌법 제6조에서는 “사회주의적 공유제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각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이 시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제6조)”를 추가하고,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구성부문이다. 국가는 개인경제,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경제, 사영경제를 인도, 감독, 관리한다(제11조)”로 수정하였다.³⁴⁾ 이 가운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종 분배 방식이 병존한다”는 것은 ‘노동에 따른 분배와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서로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³⁵⁾ 이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결국 등소평 이론은 4인방이 그렇게 비판했던 ‘오직 생산력 이론’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등소평 이론의 일면성-생산력만 있고 생산관계가 없는, 또는 경제만 있고 정치가 없는-은 또한 모택동 사상이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는, 다시 말하면 ‘모택동 숭배(熱)’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34) 중국에서는 중공 전국대표대회에서 천명된 정책을 반영하여 헌법을 한차례씩 수정하여 왔다. 1982년 9월 중공 12대 후 1982년 12월에 헌법이 개정되었고, 1987년 중공 13대 후 1988년 12월에 헌법이 수정되었고, 1992년 중공 14대 후 1993년 3월에 헌법이 수정되었고, 1997년 9월 중공 15대 후 1999년 3월에 헌법이 수정되었다.

35) 이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논쟁이었다.

참고문헌

- 백승욱. 『중국 문화대혁명과 아포리아: 중앙문혁소조장 천보다와 ‘조반’의 시대』 (서울: 그린비, 2012).
- 최형익. 『칼 마르크스의 노동과 권리의 정치이론』 (고양 : 한국학술정보, 2005).
- 薄一波.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 下卷』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 蔡繼明. 『從按勞分配到按生產要素貢獻分配』 (人民出版社, 2008).
- 毛澤東.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七冊』 (中央文獻出版社, 1992).
- 李振霞. “胡耀邦直接領導和具體組織的真理標準討論不是偶然的”. 龐元正, 劉維林 主編. 『讓思想衝破牢籠-真理標準討論與新的思想解放』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8).
- 李振霞. “胡耀邦直接領導和具體組織的真理標準討論不是偶然的”. 龐元正, 劉維林 主編. 『讓思想衝破牢籠-真理標準討論與新的思想解放』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8).
- 李唯一 編. 『中國工資制度』 (中國勞動出版社, 1991).
- 李唯一. 『中國工資制度』 (中國勞動出版社, 1991).
- 李 銳. 『李銳反‘左’文選』 (中央編譯出版社, 1998).
- 林蘊暉. “黨對社會主義認識的誤區與‘文化大革命’的發動”. 張化, 蘇采青 主編. 『回首“文革”(上)』 (中共黨史出版社, 2000).
- 林蘊暉. “黨對社會主義認識的誤區與‘文化大革命’的發動”. 張化, 蘇采青 主編. 『回首“文革”(上)』 (中共黨史出版社, 2000).
- 朱光磊. 『當代中國的政府過程』 (天津人民出版社, 1997).
- 朱育和·蔡樂蘇 主編. 『毛澤東與20世紀中國』 (清華大學出版社, 2000).
- 石仲泉. “馬克思所說的資產階級權利和毛澤東對它的誤解”. 張化, 蘇采青 主編. 『回首“文革”(上)』 (中共黨史出版社, 2000).
- 薛暮橋. 『薛暮橋選集』 (山西經濟出版社, 1991(1985)).
- 葉永烈. 『張春橋傳』 (作家出版社, 1993b).

- 宋連生, 『總路線・大躍進・人民公社化運動始末』(云南人民出版社, 2002).
- 沈寶祥, 『真理標準問題始末』(中國青年出版社, 1997).
- 葉永烈, 『姚文元傳』(時代文藝出版社, 1993a).
- 王祿林, “〈五・七指示〉初探”, 張化・蘇采青 主編, 『回首“文革”(上)』(中共黨史出版社, 2000).
- Whyte, Martin King, “Who Hates Bureaucracy? A Chinese Puzzle,” Victor Nee and David Stark eds, *Ren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pp. 233-254.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안치영, “1978년 진리표준 토론과 그 정치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13(1) (2004).
- 안치영,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 대한 재고”, 『국제지역연구』, 17-4 (2008).
- 백승욱, “천보다(진백달)를 통해본 중앙문혁소조의 문화대혁명”, 『현대중국연구』, 12(1) (2010).
- 羅平漢, 『天堂實驗: 人民公社化運動始末』(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06).
- 高遠戎, “大躍進期間的資產階級法權討論及影響 試析毛澤東對社會主義社會的一試構想”, 『中央黨史研究』, 3 (2006).
- 紀岩, 制限資產階級法權的思想的武器, 『北京周報』, 22 (1975).
- 羅軍生, “陳云在反冒進和反冒進的旋渦中”, 『黨史文獻』, 5 (2005).
- 羅平漢, “毛澤東反反冒進論析”, 『毛澤東思想論壇』, 2 (1997).
- 譚炳華, “劉小奇在反冒進・反反冒進中的態度分析”, 『黨史研究與教學』, 5 (1999).
- 譚幼萍, “論鄧小平復出前後有關按勞分配的思想”, 『當代中國史研究』, 7-6 (2000).
- 薛暮橋, “四人幫的資產階級法權問題反動的謬論”, 『紅旗』, 11 (1977).
- 沈志華, “周恩來與1956年的反冒進: 記中共中央關於經濟建設方針的一場爭論”, 『史林』, 1 (2009).
- 吳敬璉, 周叔蓮, “關於資產階級法權問題歷史的考察”, 『歷史研究』, 4 (1977).
- 吳志軍, 金燕, “試析在徘徊中前進時期經濟思想的解放”, 『黨史文苑』, 2 (2005).
- 王平原, “新中國民法典起草與破除資產階級法權”, 『江蘇警官學院學報』, 26(2)

(2011).

汪浩, “反冒進過程中周恩來的堅持和抗爭”, 『毛澤東思想研究』, 23(3) (2006).

王浩, “反冒進過程中周恩來的堅持和抗爭”, 『毛澤東思想研究』, 23(3) (2006).

于光遠, 『1978 我親歷的那次歷史轉折: 十一屆三中全會的台前幕後』(中央編譯出版社, 1998)

于光遠, 『按勞分配問題討論會的發起和幾次會議的經過·思考與實踐』(湖南人民出版社, 1984).

劉強, “論‘洋躍進’與中國改革開放的關聯”, 『武漢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2(6) (2009).

劉慶堂, 張玉璞, “按勞分配原則是無產階級法權”, 『江漢學報』(1963.4).

劉武生, “周恩來與冒進·反冒進”, 『縱橫』, 5 (2004).

李曉, “蘇共二十大與毛澤東適合中國國情的社會主義建設道路的探索”, 『青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總 第106期) (2004).

張春橋, “關於資產階級階級的全面的獨裁”, 『北京周報』, 14 (1975).

張春橋, “破除資產階級的法權思想”, 『解放』, 6 (1958)(『人民日報』1958.10.13.).

程越, “認真讀書 攬緊學習”, 『紅旗』, 3 (1957).

程中原, “毛澤東的三項指示和鄧小平主持的1975年整頓”, 『當代中國史研究』, 1 (1997).

趙泉鈞, “兩種社會主義建設方針之爭: 反冒進與反反冒進: 周恩來對八大正確路線的一個介貢獻”,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9(4) (1996).

趙泉鈞, “兩種社會主義建設方針之爭: 反冒進與反反冒進-周恩來對八大正確路線的一個貢獻”, 『寧夏大學學報(人文科學版)』, 9(4) (1996).

宗玉梅, “試析1957-1958年毛澤東批評反冒進的負面效應”, 『信陽師範學院學報』, 4, 118-121 (1999).

陳洪勛, “略論毛澤東批判反冒進的政治因所”, 『黨史研究與教學』, 2(165) (2002).

陳曉農, “陳伯達最後口述回憶”, 『星克爾出版(香港)有限公司』(2005).

韓 鋼, “最初的突破: 1977. 1978年經濟理論大討論述評”, 『中共黨史研究』, 6 (1998).

- 胡學舉, “鄧小平對中共八大路線的堅持和發展”, 『黨史研究與教學』, 4 (2004).
- 宮下忠雄, “中國におけるブルジョアの權利について”, 『成城大學經濟研究』, 55(56) (1976).
- 宮下忠雄, “中國における勞動に應じる分配の原則”, 『勞動問題研究』, 17 (1976).
- 西村幸次郎 譯, “中國におけるブルジョアの權利論爭”, 『比較法學』, 12(1) (1977).
- 西村幸次郎 譯, “中國におけるブルジョアの權利論爭(續)”, 『比較法學』, 13(1) (1978).
- 石原孝一, “1958-9年のブルジョアの權利に関する論爭”, 『中國研究月報』, 335 (1976).
- 章文貢, “批判資產階級法權思想的强大武器-學習〈井岡山鬭爭〉”, 『人民日報』 (1975).
- 張春橋, “破除資產階級法權思想”, 『人民日報』 (1958.10.13).
- 張仲實, “對於‘資產階級法權’一語譯法的意見”, 『인민일보』 (1959. 3. 28.).

〈제1차 부르조아 권리 논쟁 관련 글〉

- 陈先达, “关于资产阶级法权问题的一些争论”, 『前线』, 1 (1958).
- 黄逸峰, “试论破除资产阶级法权与按劳分配问题”, 『财经研究』, 9 (1958).
- “关于资产阶级法权问题的座谈”, 『学术月刊』, 11 (1958).
- 程毅川, “论社会主义制度下的资产阶级法权”, 『学术月刊』, 11 (1958).
- 本刊编辑部, “我们对讨论资产阶级法权问题的意见”, 『学术月刊』, 12 (1958).
- “上海社联六次座谈资产阶级法权问题综述”, 『学术月刊』, 12 (1958).
- “什么是资产阶级法权?”, 『中国农垦』, 15 (1958).
- 杨奎章, “资产阶级法权必须批判”, 『理论与实践』, 11 (1958).
- 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论“资产阶级式的法权”, 『理论与实践』, 1 (1959).
- 刘特读, “论破除资产阶级法权残余问题”, 『安徽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1 (1959).
- 魏双凤, “资产阶级法权残余的主要表现”, 『理论与实践』, 1 (1959).
- 龙世雄, “对破除资产阶级法权残余问题的一点意见”, 『理论与实践』, 1 (1959).
- 魏双凤, “资产阶级法权残余的主要表现”, 『理论与实践』, 1 (1959).

何城, “一点补充修正——关于如何对待资产阶级法权残余问题,” 『理论与实践』, 1 (1959).

〈제2차 부르조아 권리 논쟁 관련 글〉

李红星, “破除资产阶级法权思想 为人民做好‘社会公仆’,” 『山西师院』, 2 (1975).

“做限制资产阶级法权的带头人,” 『武汉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 (1975).

张法书, “限制资产阶级法权是无产阶级专政的重要历史任务,” 『青海民族学院』, 2 (1975).

“资产阶级法权救不了林彪的命——批判林彪利用资产阶级法权破坏团结的罪行,” 『四平师院』, 3 (1975).

团结起来, “巩固无产阶级专政——批判林彪利用资产阶级法权破坏革命团结的罪行,”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3 (1975).

孙凯, “做自觉限制资产阶级法权的促进派,” 『山东师院(社会科学版)』, 2 (1975).

张法书, “限制资产阶级法权是无产阶级专政的重要历史任务,” 『青海民族学院』, 2 (1975).

何孔周, “破除资产阶级法权观念的好教材——《闸上风云》分析,”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4 (1975).

郑京, “对资产阶级法权必须加以限制,” 『黑龙江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 (1975).

李轩, “正确认识执行党的政策和限制资产阶级法权的关系,” 『武汉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5 (1975).

“限制资产阶级法权 坚持反修防修,” 『中山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5 (1975).

魏广庆, “谈谈在人们相互关系中限制资产阶级法权的问题——学习无产阶级专政理论的一点体会,” 『延边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 (1975).

“做批判资产阶级法权观念的坚强战士,” 『西北师大学报(社会科学版)』, 3 (1975).

何孔周, “破除资产阶级法权观念的好教材——《闸上风云》分析,”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4 (1975).

梁效, “发展新生事物和限制资产阶级法权,” 『黑龙江医药』, 2 (1976).

- 吴敬琏, 周叔莲, “关于资产阶级法权理论的历史考察,” 『历史研究』, 4 (1977).
- 郑景文, 驳“法权是经济基础”论, 『山东师院学报(社会科学版)』, 6 (1977).
- 梁小兵, 今不如昔 还是今胜于昔?——驳“四人帮”关于限制资产阶级法权不要有物质基础的谬论, 『山西师院』, 4 (1977).
- 孙芜, 斥“四人帮”在资产阶级法权问题上的谬论, 『天津师院学报』, 2 (1977).
- 高景然, 张春桥是以资产阶级的平等观“批判”资产阶级法权的, 『中山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 (1977).
- 黄宏, 一个唯心主义的反动谬论——驳所谓限制资产阶级法权“不需要物质基础”, 『思想战线』, 3 (1977).
- 赵长峰, 评林彪、“四人帮”的“斗争哲学,” 『哲学研究』, 11 (1978).
- 林子力, 有林, 历史唯物论还是历史唯心论?——对“四人帮”“批判唯生产力论”的反批判, 『哲学研究』, Z1 (1978).
- 周叔莲, 吴敬琏, “四人帮”——半殖民地半封建旧中国的招魂巫师, 『历史研究』, 7 (1978).
- 郑经实, “四人邦”为什么在资产阶级权利问题上大做文章? 『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 (1978).

One facet of Maozhedong's ideology:
Focusing on 'Criticism over Bourgeois Rights'

Lee Dongji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ould be implemented since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led by Maozhedong had failed. This could be seen in the "Criticism over Bourgeois Rights." Mao thought that "economic equality" should be put above "economic freedom" and tried to restrict or eradicate bourgeois right. Bourgeois rights was criticized twice during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The arguments focused on the restrictions on or abolishment of bourgeois rights. In the first-phase argument, bourgeois right was partially asserted while in the second-phase argument it was first entirely insisted upon and then were denied altogether. It was such ideologues as Mao and Chang chungqiao who advocated restricting or doing away with the ideology of bourgeois right; working-level officials and economic theorists opposed it. The Power shift in the second-phase argument led conclusions different to the previous ones. In short, bourgeois right was totally admitted in the second discussion, provid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and opening-up policy.

Key words

Maozhedong's Thought, Bourgeois Right, Restriction of Bourgeois Right, Criticism and Anticriticism over Bourgeois Rights

투고일 : 2016. 04. 15 / 심사(수정)일 : 2016. 05. 18 / 게재확정일 : 2016. 05. 23
--